

인도

인도 · 파키스탄 분쟁의 최근 추이와 전망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 및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잦은 분쟁을 겪어 왔다.

지난달 13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정체 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인도 의사당 건물을 급습, 의사당 경호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인도 정부가 이 사건의 배후로 파키스탄 정보기관(ISI)과 이슬람 무장단체인 '라시카르 이 토이바'와 '자이시 이 모하메드'를 지목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독립 후 3차례의 전면전과 다수의 국지전을 치른 양국은 이번 테러사태 후 영토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야포를 동원한 국지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카슈미르 분쟁의 발단

카슈미르 분쟁의 발단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단 무렵 카슈미르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이 유력하였으나, 정작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카슈미르의 통치자 하리 싱 국왕은 힌두교도였다. 하리 싱 국왕은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1947년 10월 파키스탄 군대가 카슈미르로 진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격적으로 인도 편입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1년여 동안 전쟁을 벌였으며, 1949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의 전선을 통제선으로 하여 카슈미르의 3분의 2는 인도측 자무 카슈미르, 3분의 1은 파키스탄측 아자드 카슈미르로 나누어 졌다.

1)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22만 km²이고 인구는 1,300만명에 이른다.

〈표 1〉 인도·파키스탄 관계 변화 일지

1947년	인도 독립,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1차 전쟁 발발
1949년 7월	휴전으로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의 1/3(아자드 카슈미르) 차지
1965년	카슈미르 영유권 2차 전쟁 발발
1971년	카슈미르 영유권 3차 전쟁 발발
1972년 7월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의 자체 해결과 외세 불간섭을 천명한 협약문 체결. 1949년 휴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경 재확정
1989년	이슬람 분리독립주의 단체, 자무 카슈미르에서 무장 폭동
1999년	파키스탄내 이슬람 무장단체가 자무 카슈미르를 침입, 10주간 무장 투쟁으로 1천 여명 사상(카릴 분쟁)
1999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정상회담
2000년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휴전 선포
2001년 7월	인도·파키스탄 정상회담 재개
2001년 12월	무장 피한의 인도 의사당 공격후 카슈미르 지역에서 국지전 재개

자료: 필자 정리

양국은 이 지역에서 1965년과 1971년 두 차례 더 전쟁을 겪었으며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 1988년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분리독립 운동단체 잠무 카슈미르 해방전선이 결성되면서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이후 카슈미르에서는 분리독립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독립운동을 펼치는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지원 국가로 비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양국 정상은 '라호르 선언'으로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지난 7월의 정상회담²⁾에서도 평화 정착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입지강화가 목적

이번 인도 의사당 테러는 파키스탄내 이

슬람 무장단체들이 파키스탄의 對아프간 공격협조로 가까워진 미국과 파키스탄의 협력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회라는 국가상징을 공격한 이번 테러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면전이 발발하면 미국은 그 동안의 외교정책으로 볼 때 전통적 우방인 인도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서 친미정책을 펴온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집권기반이 취약해져 중국에는 파키스탄내에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전에는 서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펴왔으나, 對아프간 공격의 전략적 요충지인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2) 카슈미르 영토분쟁, 양국간 가스관 건설, 전쟁포로, 핵 문제 등을 의제로 인도에서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함. 그러나 양국간 정상회담 자체는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1970년	인도, 핵연구 10개년 계획 수립
1974년	인도, 첫 핵실험 실시
1976년	파키스탄, 핵 개발 20개년 계획 수립
1979년	인도, Agni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 개시
1983년	파키스탄, 중국내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첫 핵실험
1994년	인도, Agni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1998년 4월	파키스탄, Ghauri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1998년 5월 11일	인도, 핵실험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 핵실험

자료 : <http://www.joins.com>, 2001.12.27.

하였다.

국민의 70% 이상이 아프간 민족과 같은 파슈툰족으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파키스탄도 자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경제난 해소와 무사라프 정권의 집권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미협조를 천명하였다. 이후 파키스탄은 미국에 대해 30억 달러의 대외부채 탕감, 핵실험 이후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카슈미르 분쟁 해결 등을 요구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과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파키스탄에게 상당한 경제지원을 제공³⁾하였다.

인도, 對파키스탄 압박 강화

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간 반(反)인도 독립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카슈미르의 이슬람 무장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도는 파키스탄 주재 인도 대사의 본국 송환 등 외교적 대응과 함께 대규모 병력의 국경 증강배치, 산발적인 교전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⁴⁾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는 건 어려워, 인도는 군사공격을 위협용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외교공세로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공격을 촉구하는 집권 인도인민당(BJP)의 압력 때문에 인도 정부로서는 파키스탄과의 외교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3개의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BJP에는 힌두교 민족주의자, 우익정당 등 과격단체들이 포함돼 있어 파키스탄과의 설부른 외교

3) 미국은 총 16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2001.9.22)하였으며, IMF는 13억 달러 규모의 빈곤퇴치와 성장촉진 차관(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을 승인(2001.12.7)하였음. 특히 파리클럽이 파키스탄의 대외채무 125억 달러에 대해 파격적인 채무재조정에 합의(2001.12.13)함으로써 외채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

4) 인도는 최대 250개 그리고 파키스탄은 1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협상은 연정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우타르 프라데시주(인구 1억 4,000만 명)를 포함한 4개 주에서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BJP는 바지파이 인도 총리에게 강경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파키스탄과의 외교적 타협이 용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파키스탄, 조속한 해결 추진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인도, 미국, 국내 강경파 등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인도는 테러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부각시키며 국지전, 경제제재, 국제 여론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양국간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파키스탄에 테러범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파키스탄 정보기관(ISI)이 탈레반 정권을 비호해왔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다. 한편 쿠데타로 장권을 장악, 집권기반이 취약한 무샤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보기관과 이슬람 원리주의 강경파들의 주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샤라프는 국내 강경파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인도와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무샤라프는 의사당 테러 이후 평화적 해결 의사를 거듭 천명하는 한편,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3백여 명을 체포했다.

또한 무샤라프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배치된 병력 일부를 인도 접경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두 차례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 인도에 대항하는 동맹관계를 강화하면

서 미국에 대해서는 무샤라프 정권이 붕괴될 경우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인도 의사당 테러로 인해 발생한 이번 분쟁은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카슈미르 무장단체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인도가 어느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파키스탄도 조속한 사태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양국간 전면전 발발시 특정 국가를 지원하기 어려우며, 對테러 전쟁의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외교적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MITD 대표다운 고려하는 두 사태체계의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 나라는 11년 전부터 매년 1회 1인에 신시체 온 상호 핵시설목록 교환 행사를 금년에도 실시함으로써 상대국의 핵시설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의석 과반수에 미달하고 무샤라프 정권도 자국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대치중이라 양국 강경파들의 전쟁 불사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는 인도, 파키스탄, 미국 등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孫承鎬】